

90장 -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 (1)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 (2)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맘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 (3)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뉘 능히 끊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370장 - 주 안에 있는 나에게

- (1)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탄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 (2)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 (3)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 주시네
- (4)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 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 하시네
- 후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6월 19일(화) 기도 담당 : 집사

2018년 6월 18일(월)

이른아침예배

인도 : 이신기 목사

예배를 여는말	인도자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90장	다같이
기도	길강현 집사
성경봉독 욥기 21장 7~15절	인도자
찬양	새벽찬양대
설교 『의인과 악인의 삶』	이신기 목사
기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다같이
찬송 370장	다같이
축도	설교자

☞ 오늘의 말씀 < 욥기 21:7~15 >

7)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8)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9)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10)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배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11) 그들은 아이들을 양 떼 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12)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13)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14)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15)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18년 6월 18일(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읊기 말씀을 통하여 나 혼자 스스로 살아가는 악인의 삶이 아닌,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결단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더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그분 앞에서 고민하며 씨름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새문안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람의 계획과 뜻에 따라 세워져가는 교회가 아닌 주님의 온전하신 계획과 뜻에 따라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애쓰시는 이상학 담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셔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으로 목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새 성전이 지어져 가는 중에 있습니다. 어떠한 안전사고도 없게 하시며, 모든 일이 주안에서 순조롭게 진행되어져 가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6월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북미정상들이 만나 평화의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각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려 가실 한반도의 모습을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북녘 땅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주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귀하게 여기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한 날 되게 하여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